

# ‘빙그레 웃는 섬’ 완도에 ‘웃음택시’ 달린다

## 교통카드·신용카드 결제기 갖춘 16대 발대식

‘빙그레 웃는(莞) 섬(島)’인 완도에서 ‘웃음택시’가 첫선을 보였다.

완도군은 15일 군청광장에서 ‘웃음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웃음택시’는 개인 12대·법인 4대 등 모두 16대이다. 완도를 10대,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신지도에 1대,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보길도 5대다.

‘웃음택시’를 운행할 기사들은 건강한 웃음과 친절로 웃음 천국 완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군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한 웃음과 친절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택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웃음택시’를 도입했다.

웃음택시에는 내비게이션, 교통카드·신용카드 결제기, 영수증 발급기 등의 시스템을 갖췄다. 김종식 군수는 “올해 시범 도입한 웃음택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웃음 축제’를 열고 웃음 치료사를 양성하는 등 ‘웃음 산업’을 선



4월 ‘웃음 축제’를 열고 웃음 치료사를 양성하는 등 ‘웃음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사업장 찾아가 산재보험 홍보 호평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지사장 박귀단)가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중심의 업무를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15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따르면 관내 지난 8월말 기준 2만1570여개 사업장에서 17만420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험급여는 3822명에게 275억원이 지급됐다. 목포지사는 넓은 관할지역과 부족한

근무인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찾아가 사후 보장 등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복지향상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귀단 지사장은 “산재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재활서비스 강화로 근로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

을 만들겠다”며 “올해 처음 시행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관내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무안·진도·해남·완도·영암·강진·장흥 등 1개 시·8개 군을 관할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압해읍 농기센터 준공

군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행정서비스와 농업 기술상담 등을 위해 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300㎡·연면적 120㎡(지상 2층) 규모의 지소를 건립했다.

박우량 군수(왼쪽에서 6번째)와 신안군 기관단체장들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배) 압해읍 지소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 녹색화장실 문화대상 최우수

## 지남해 장려상

진도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협회 주최의 ‘제3회 녹색화장실 문화대상’ 평가에서 연속 2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도군은 “녹색화장실 문화대상 평가에서 지난해 장려상을 받는데 이어 올해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주최)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속 2회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공중 화장실 설치 실적 및 시설대책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현황 등 14개 세부지표에 대한 서면심사와 2차 현장확인 심사 등 종합평가로 이뤄졌다. 녹색화장실 문화대상은 올바른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근간인 녹색화장실 문화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시상 행사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청산 ‘구들장 논’ 농어업유산 지정 추진

## 완도군, 지자체·전문가 워크숍

완도군은 최근 청산면사무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유산 지정제도’ 관련 지자체 및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업무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 도입할 농·어업 유산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열린 토의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어업 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농림수산식품부 김경두 사무관)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및 일본의 세계농

업유산 사례(농어촌연구원 박운호 박사) ▲청산도 구들장논의 농·어업유산 가치 및 향후 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민·관의 준비과정 및 활용 계획(황길식 박사) 등에 관한 등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워크숍 참석자들은 청산도 구들장논 현지를 답사했다. 이득섭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 부군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국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관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청산면에 분포한 ‘구들장논’에 대해 농·어업 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제도(GI-AHS) 인정을 통해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할 필요를 인식하고, 2014년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막과 맞춰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 해남 물김 작황 양호 가격도 30%나 올라

해남지역 물김 초기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물김 위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 지난해 29일 첫 경매 이후 15일 현재까지 33억 59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물김 가격은 120kg들이 한 포대에 최고 27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올랐다.

마른 김 상품 가격도 100장 한 속에 1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하면 수온이 안정적이고 0.5~1도 낮아 갯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생산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전 북

# 남원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 순조

## 주생면 13만㎡에 87억 투입... 공정률 20% 하수·분뇨처리장 등 체험 친수공간 탈바꿈

남원시가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매립장 부지 7만㎡와 농지 6만㎡ 등 총 13만㎡에 사업비 87억여원을 투입해 주생면 동동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요천 수질개선 ▲생물서식 기반조성 ▲생태학습 및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요천 생태습지공원은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하수 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이 밀집돼 혐오지역이 환경·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남원시는 습지내에 ▲침전·여과 구간 ▲정화식물을 이용한 자정능력 향상 구간 ▲조류서식처 및 어류·양서류 등 수생식물 관찰데크 ▲생태학습 및 친수 문화활동 구간을 조성해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전량(일일 3만5000㎥)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 역세 숲과 다

목적 운동마당, 생태주차장 등을 만들어 생활하수 정화과정 및 생태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습지조성으로 하수 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질소·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요천의 부영양화를 예방하고 인근 농경지·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 요천·섬진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주생면 주민들의 피해의식 해소, 요천변 철새 및 조류서식처 제공, 자연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예방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

## 정읍 성결교회, 백미 10kg 1004포 기탁

정읍시 금봉동 소재 정읍 성결교회(담임목사 전병일)가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 성결교회는 지난 13일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돕는데 써달라며 13일 백미 10kg 1004포(시가 2700만원)를 정읍시에 기탁했다.

시는 기탁 받은 쌀을 전북 공동모금회를 통해 정읍시 저소득층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일 담임목사는 “정읍 성결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고, 뜻깊은 나눔을 위해 교회 내에서 바자회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성결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 산소길 걸으며 스트레스 치유

## 장성 치유의 숲·지리산 둘레길 걷기대회

서부 지방산림청(청장 김성룡)은 17~18일 장성 ‘치유의 숲’과 ‘지리산 둘레길’에서 잇따라 걷기대회를 연다.

서부 지방산림청은 17일 장성 축령산 ‘치유의 숲’에서 ‘산소길 건강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또 17~18일 이틀간 ‘지리산 둘레길’ 하동구간(삼화실 예코하우스)에서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를 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산소길 건강사랑 걷기대회’는 우리나라 최대 권력 나무 조림 성공자인 ‘치유의 숲’ 산소

길을 걸으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지리산 둘레길 걷기축제’는 ‘지리산 둘레길’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걷기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한편 전남·북, 경남 3개도 5개 시·군을 잇는 ‘지리산 둘레길’(총 274km)은 연간 40여 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 ‘꿈의 도서관’에서 책임기

순창군 옥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새롭게 개관한 ‘디스커버리즈 꿈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행뉴스

# 단신

## 시군의장단협, 농작물재해보험 건의안 채택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15일 김제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단은 건의문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아 농가에 큰 도움이 못 된다”며 농가 부담률을 현재 25%에서

10%로 낮춰 보험 가입을 늘리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며, 운영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해보험공사’를 설립, 지역특성에 맞는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김주열 열사 추모곡 원곡 제작본 CD 기증

4·19 혁명을 촉발시킨 남원출신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는 노래작사가인 차경철(76)씨가 최근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회장 박영철)에 노래 원곡 제작본 CD를 기증했다. 차씨는 1960년 4월 11일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며 ‘남원땅에 잠들었네’ 가사를 썼다. 이어 가요 ‘빈대떡 신사’로 유명한 한복남씨가 작곡을 하고, 가수 손인호씨가 노래를 음반으로 발매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순창서 17~18일 ‘오선위기배 바둑대회’

‘제1회 오선위기(五仙圍碁) 다섯선신이 바둑을 두는 것’배 바둑대회’가 17~18일 이틀간 순창에서 열린다. 전북도 바둑협회(회장 김희수)와 순창군 바둑협회(회장 강대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성인부 ▲순창지역 동호인부

▲학생부(초·중·고등학생) 등으로 나눠 치뤄진다. 이번 대회는 신라말 도선국사의 ‘유산록’(遊山錄)에 순창 회문산중 ‘오선위기’의 현상이 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부안, 광주국제식품전서 농특산물 홍보

부안군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 ‘제8회 광주국제식품전’에 참가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펼친다. 광주시와 코트라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의

식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며, 20개교 260개 업체가 참가한다. 군은 곰소갯길, 뽕주, 천년의 숲씨 부안 쌀 등 30여개 품목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